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여행 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A]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A]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 신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18.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19.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20.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봐.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 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18세기 북학파 → 연행록으로 기록 → 북학론을 구체화
관심에 따라 → 달랐기 때문에 → 북학론도 차이
중화 관념 → 각각 다르게 반영

지문을 독해할 때, 복잡한 문장 구조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눌러 읽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문장은 사실 'A는 B이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체부**와 **서술부** 위주로 찾아봅시다.

18세기 북학파들은 연행록으로 기록했고, 그 기록에는 북학론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정보들을 모두 **설명관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학파들은 관심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학론이 차이를 보인 이유는 바로 학문 성향과 관심이 학자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정보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존재합니다. 중화 관념이 다르게 반영된 것 역시 개인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겠죠?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 ← 박제가
X : 단순한 현실
O : 지향할 가치 기준
청의 현실 → 선택 및 추상화 / 보존 / 발전 방향
절대성 인정 →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
X : 독자성 유지
O : 중화와 합치

박제가의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북학이 무엇이죠? 북학의 설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1문단을 제대로 독해했다면 북학론과 청의 문물제도 수용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의 것을 배운다는 의미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제가의 청의 현실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Not A, But B'의 구조가 등장했으니, '지향할 가치 기준' 이 정보를 눌러 읽어 **각인**해야 합니다. 박제가

가 바라본 청의 현실은 선택 및 추상화되었으며, 손상 없이 보존되었고,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설명관계**로 묶이는 구조가 보이시나요? 청의 현실을 설명하는 정보들은 모두 **병렬관계**로 연결되며, 큰 축에서 설명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제가의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정보는 **선후관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과 대비되는 **반대계열**의 정보는 조선의 독자성입니다. 대비되는 계열의 정보들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선지에서 다른 맥락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 적절히 **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X : 주류 / 의리 문제
O :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 / 당위성
X : 부정적 / 주자학자
O : 자연스러운 욕망 / 실용적인 입장

박제가가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을까요? 청을 배워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독해하면서 이미 파악할 수 있었으니, 기본적으로 **'박제가와 명나라는 서로 대비되는 정보일거야'** 하는 생각과 함께 문장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박제가의 입장에서 의리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제가와 의리는 **반대계열**이고, 당연히 주류의 견해와도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박제가와 **동일계열**인 정보는 무엇일까요? 문물제도의 이익, 청을 배워야 할 당위성입니다. 박제가의 또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라도 대비됩니다. 대신 자연스런 욕망으로 인정하고,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등의 실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박제가의 입장에서 여러 정보들이 제시되는데, 각각 박제가와 **동일계열**로서 **치환**될 수 있는지, 혹은 대비되는 **반대계열**의 정보인지 구분하며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t A, But B' 구조가 나온다면 **각인**해야 합니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

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덕무 →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일련의 조치 →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

X : 도외시

O : 물질적 삶

평등견 → 현실적 차이 / 양쪽 모두의 가치

X : 찬반의 이분법

청을 배우는 것 / 조선 풍토에 맞게 → 모순되지 않는다

X : 배타적

O : 구분

이덕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첫 번째 문단에서 북학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제시되었고, 학자들마다 관심이 달라 북학론이 다르다고 했으니, 박제가와 이덕무 사이의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좀 더 무게 있게 서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문에서 **지시문장**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덕무는 우선,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청의 현실을 지향 기준으로 삼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박제가와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덕무는 일련의 조치를 보고, 이것이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덕무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에, 잘 정비된 마을을 보고도 비판점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서도 정보를 사이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덕무가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제가와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이덕무 역시 물질적 삶을 긍정합니다. 이덕무와 이익 추구는 **동일계열**입니다.

이덕무가 제시한 사상의 핵심은 평등견입니다. 평등견이 **주체부**이니, **서술부**를 찾아볼까요? 평등견은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고, 양쪽 모두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대신 찬반의 이분법은 평등견이 부정하는 **반대계열**입니다. 이덕무는 청과 조선은 구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양쪽 모두의 차이와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덕무의 입장에서 청을 배우는 것도 좋고,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외양이 만주족처럼 → 비통한 감정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 → 벗어나는 모습

이 부분에서는 이덕무의 한계점이 제시됩니다.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했기 때문에 비통한 감정을 토로했겠죠? 또한 명에 대한 의

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과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각각 **선후관계**로 정보를 연결하며 됩니다. **‘박제가는 분명 주류의 견해를 부정하고 의리 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덕무는 여전히 명을 긍정하고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네?’** 하는 생각까지 확장된다면 문단과 문단을 넘어 총괄하게 독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18세기 후반의 중국 → 경제 발전이 정점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 교역이 활발하게

O : 사치품 / 일상적 물건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

외부적 요인 → 대외 무역의 발전 / 은의 유입

상품 경제의 발전 / 세계적 순환 → 긴밀하게 연결

주체부는 무엇인가요? 18세기 후반의 중국입니다. **서술부**는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있었다는 부분이겠네요. ‘A는 B이다’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 단계의 다양한 시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표현이 없어도, **선후관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치품도 맞고, 일상적 물건도 맞습니다. 빠르게 읽다보면 아무래도 사치품과 일상적 물건이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Not A, But B’ 구조로 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둘은 **병렬관계**입니다.

다음 부분은 **역방향** 독해가 이루어집니다. 외부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외 무역의 발전, 다른 하나는 은의 유입입니다. 문장을 **정방향**으로 한 번 읽고, 다시 **역방향**으로 돌려 **설명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상품이 세계적으로 순환하니, 긴밀한 연결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청의 변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

화 등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X : 지속

19세기 → 심각한 내외의 위기 → 급속한 하락의 시대

18세기 후반 → 징후들이 나타나고

급격한 인구 증가 →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해결되지 않았다

X : 사회적 유대

O : 상호 부조 관계

결사 조직 → 불법적인 활동 → 반란의 조직적 기반

부정부패가 심화

지식인들이 늘어 → 규모는 정체 → 불법적인 행위

앞에서 독해한 내용으로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이 경제 발전을 잘 하고 있다는 정보가 주를 이루었는데, 19세기에 접어들자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계열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19세기 중국은 심각한 내외의 위기를 맞고, 위기를 맞기 때문에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선후관계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있는 정보들은 굳이 무게 두어 눌러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유대는 약해지고, 대신 상호 부조 관계가 강해집니다. 두 정보는 대비되는 반대계열이겠죠? 역시 'Not A, But B' 구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호 부조 관계의 강화는 결사 조직의 결성을 야기하고,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을 초래했으며, 이 불법적인 활동의 규모가 커져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정보들이 마치 계단처럼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형태가 보이시나요?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양상을 반드시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그대로였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후관계입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치자들 → 불안을 느끼고

백성들을 차단 / 무역 개방을 축소

소수의 지식인들만 → 개혁 방안을 모색

통치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차단하고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백성을 차단했다는 정보와 무역 개방을 축소했다는 정보는 병렬관계입니다. 이 두 정보 사이에 엉뚱한 순서나 인과를 넣어 독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수의 지식인들만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전형적인 'A는 B이다' 구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선지 분리>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i.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했나요?
- ii.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차이를 설명했나요?

<풀이>

분리 문장 i 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학자들은 박제가와 이덕무이고, 각자 자신의 복학론을 제시합니다.

분리 문장 ii 는 어떤가요? 왜 복학론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각자 그 배경이 나타나죠? 공통적인 배경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각자 관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형성 배경도 있고, 차이점도 드러납니다.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선지 분리>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i.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했나요?
- ii.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했나요?

<풀이>

분리 문장 i 은 어떤가요? (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이 있다고 봐도 괜찮나요? 최대한 **근거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해 봅시다. 박제가는 중국의 현실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향할 가치 기준이자 발전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덕무는 박제가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중국을 바라봅니다. **분리 문장** ii 의 경우, 설령 각 관점의 의의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은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의의를 찾아볼까요?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및 주장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그들의 복학론 자체의 의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근거 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선지 분리>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i.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했나요?
- ii.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했나요?

<풀이>

분리 문장 i 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중국의 여러 사회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중국은 어땠나요?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에서는 애초에 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별 서술이라고 보기에 애매하지만, 설령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을 인정해도 하나의 축이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리 문장** ii 는 **틀린 말**이 됩니다.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선지 분리>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i.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했나요?
- ii.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분석했나요?

<풀이>

분리 문장 i 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서 중국의 사상적 변화가 제시되었나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사상적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18세기 중국의 사상은 어떠했나요? 제시된 여러 개의 물음에 모두 답할 수 없기에, 즉 근거 문장을 찾을 수 없기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지니는 긍정, 부정 측면 역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선지 분리>

(가)와 (나)는 모두 /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i. (가)는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했나요?
- ii. (나)는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했나요?
- iii.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나요?

<풀이>

(가)부터 보겠습니다. 18세기 중국의 현실이 있나요? (나)에서는 드러나고 있나요? 사실 이 선지는 **근거 문장** iii만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가)와 (나) 모두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 예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i 과 ii가 맞더라도, iii이 확실히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선지 선택**입니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선지를 분리한 뒤에, 어떤 **분리 문장** 먼저 정오를 판단할 것인지 빠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의 **분리 문장** 중 하나만 틀려도 그 선지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리 문장**을 선택해야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근거 문장>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풀이>

이 선지는 특별히 더 설명할 것 없이 앞에 제시된 **근거 문장** 만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박제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선은 독자성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중화와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의 현실 / 중화 / 발전 방향 이 세 정보를 모두 **동일계열**이자 **병렬관계**로 처리할 수 있기에, 박제가는 조선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근거 문장>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풀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거 문장**과 그대로 **내용 일치**되기에, 특별히 더 풀이할 내용도 없습니다.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선지 분리>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i.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했나요?
- ii. 이덕무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나요?

<근거 문장>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

<풀이>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문을 독해할 때, 객관적 태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 정비된 마을을 보고도 숨겨진 민생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선후관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에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선지 분리>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i.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했나요?
- ii. 이덕무는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나요?

<근거 문장>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풀이>

분리 문장 i 은 **맞는 말**입니다. 이덕무는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덕무와 청 문물의 효용성은 **치환**될 수 있는 **동일계열**의 정보입니다. **분리 문장** ii 의 경우, 청이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제시된 **근거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덕무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모습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덕무의 입장에서 중화는 청이 아니라 명인 것입니다. 비통한 감정은 **분리 문장** ii 와 **반대계열**이 됩니다.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선지 분리>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 i. 박제가는 중화 관념에 대해 긍정적이었나요?
- ii. 이덕무는 중화 관념에 대해 긍정적이었나요?

<풀이>

굳이 **근거 문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박제가와 이덕무 모두 중화 관념 자체를 긍정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제가와 이덕무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북학론을 주장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중화 관념 자체를 수용하고 긍정하지만, 관심 분야에 따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 전체를 근거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화 관념을 부정했다는 내용의 **근거 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18.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 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근거 문장>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

<풀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평등견이 무엇인가요? 지문을 독해할 때 설명관계와 병렬관계를 활용해 평등견을 정리한 기억이 나와 합니다. 평등견과 이분법은 반대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 선지는 지문과 대응될 수 없습니다.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근거 문장>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

<풀이>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나라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 선지는 지문과 대응될 수 없습니다.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선지 분리>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i.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나요?
- ii.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나요?

<근거 문장>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풀이>

분리 문장 i 부터 보겠습니다. 평등견은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나요? 평등견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평등견은 이분법을 지양하고, 현실적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분리 문장** ii 는 어떤가요? 평등견이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나요? 지문을 제대로 독해했다면, 평등견이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근거 문장>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들]

<풀이>

평등견과 이 선지는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선지가 박제가의 입장과 동일계열인가요? 이덕무가 중국인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모습을 보고 명에 대한 의리 문제를 떠올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자신의 중심 사상과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평등견의 입장에서 이 선지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보입니다.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선지 분리>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i.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했나요?
- ii.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고 했나요?

<근거 문장>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풀이>

평등권은 청과 조선이 구분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근거 문장** i 은 **맞는 말**입니다. 평등권이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해도 된다고 보았나요? 해당하는 **근거 문장**을 찾아봅시다. 청을 배워도 괜찮고,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정보와 **동일계열로 내용 일치**될 수 있습니다.

19.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근거 문장>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풀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경제적 변영이 아닌, 위기의 씨앗들입니다. 이 선지는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근거 문장>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풀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경제적 변영이 아닌, 위기의 씨앗들입니다. 이 선지 역시 경제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근거 문장>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풀이>

반란의 위험성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결사 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사 조직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상호 부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부조 관계는 왜 맺어졌나요? 바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후관계**를 파악해야 이 선지와 연결되는 적절한 **근거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근거 문장>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근거 문장>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

<풀이>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있었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심해진 원인이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인가요? 다시 지문의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근거 문장**을 찾아보면,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해진 원인은 인구가 증가해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불법적인 결사 조직의 형성과 **선후관계**이고, 관료 조직 규모의 정체는 부정부패의 심화와 **선후관계**입니다.

<실전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지문을 독해할 때 정말 엄청난 규모의 **선후관계**로 이어지는 문장들을 읽은 **기억**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정보와 정보 사이의 관계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연결 지어 잘못된 **선후관계**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문을 꼼꼼히 읽어 '위기'와 '경제적 번영'을 구분한 상태에서 선지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봐.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근거 문장>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

<풀이>

우선, <보기>는 중국인들의 상업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근거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 현명하면 풍류와 명망은 장사를 해도 그대로 남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A]에 제시된 실용적 입장과 **치환**됩니다.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근거 문장>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풀이>

<보기>는 『북학의』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조선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청의 제도를 배워 수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조선의 산물 유통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의 현실을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봐.

<근거 문장>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

<풀이>

<보기>는 중국인들의 상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재상조차 직접 물건을 산다고 언급하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에서는 질과 양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국내 교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니, 두 서술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풀이>

<보기>는 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지만, 약과 비단 등의 물건은 사용하면 소멸된다고 서술하면서 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나)에서는 은이 중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문장**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했다고 봐야 합니다.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풀이>

<보기>에서는 중국의 관료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직접 물건을 사고, 또 장사를 하는 모습 등을 언급하며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는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법적 행위가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지배층의 일부 긍정적 모습만 묘사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